

A black silhouette of a person with short hair, bowing their head down in a gesture of distress or despair. The figure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frame, with their head tilted towards the center.

주요 정신 질환 통계 자료 분석(2023)

독일어과 이예진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 현시점의 한국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2.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였는가?

- 데이터 소개
- 데이터 전처리 과정


3.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각화 자료

4. 결론 및 시사점

정신 건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자살률 1위’ 한국, 하루 37명→41명...올해 10% 더 늘었다

입력 2024.08.06. 오후 5:02 기사원문

 권혜미 기자 TAL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올해 5월까지 자살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4.1명이었다.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으로, 유일하게 20명을 웃돌았다. 2위 리투아니아(18.5명)와는 5.6명 차이가 났다.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06321> (2024)

정신 건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한국인 정신건강, 국가 존망 논할 정도로 심각...치료도 안받아"

2024.03.14 17:59

| GEEF 참석 전문가들 "해외 사례 참조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국 노인 자살률은 나치 체제에서의 유대인 자살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청년 자살률도 매우 높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만 자살률을 낮춘 여러 해외 사례들이 있으며 한국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전 하버드대 의대 교수)와 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한국이 국가 존망을 거론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의 난제 극복 역사와 해외의 자살률 감소 사례들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교적 드러내기를 꺼리는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사이언스, 2024,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4278>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

시군구별 성별 연령군별 주요 정신질환 진료 통계 (2023)

-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으로 ADHD,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이 주상병으로 청구된 명세서 기준
- 환자수 10명 미만은 "-"으로 기재 (환자 식별 방지)

1차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118810/fileData.do> (공공데이터포털)

2차 출처: <http://opendata.hira.or.kr/op/opc/selectOpenData.do?sno=12800>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데이터 구성 변수

1. 진료년도 (2023년 자료이고, 모든 value가 2023)
2. 상병구분 (ADHD,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3. 시도 (전국)
4. 시군구
5. 성별
6. 연령군 (x0~ x9세 단위로 분할되어 있음)
7. 환자수 (10명 미만은 0으로 표시됨)
8. 입내원일수 (병원에 방문하거나 입원한 일수)
9. 요양급여비용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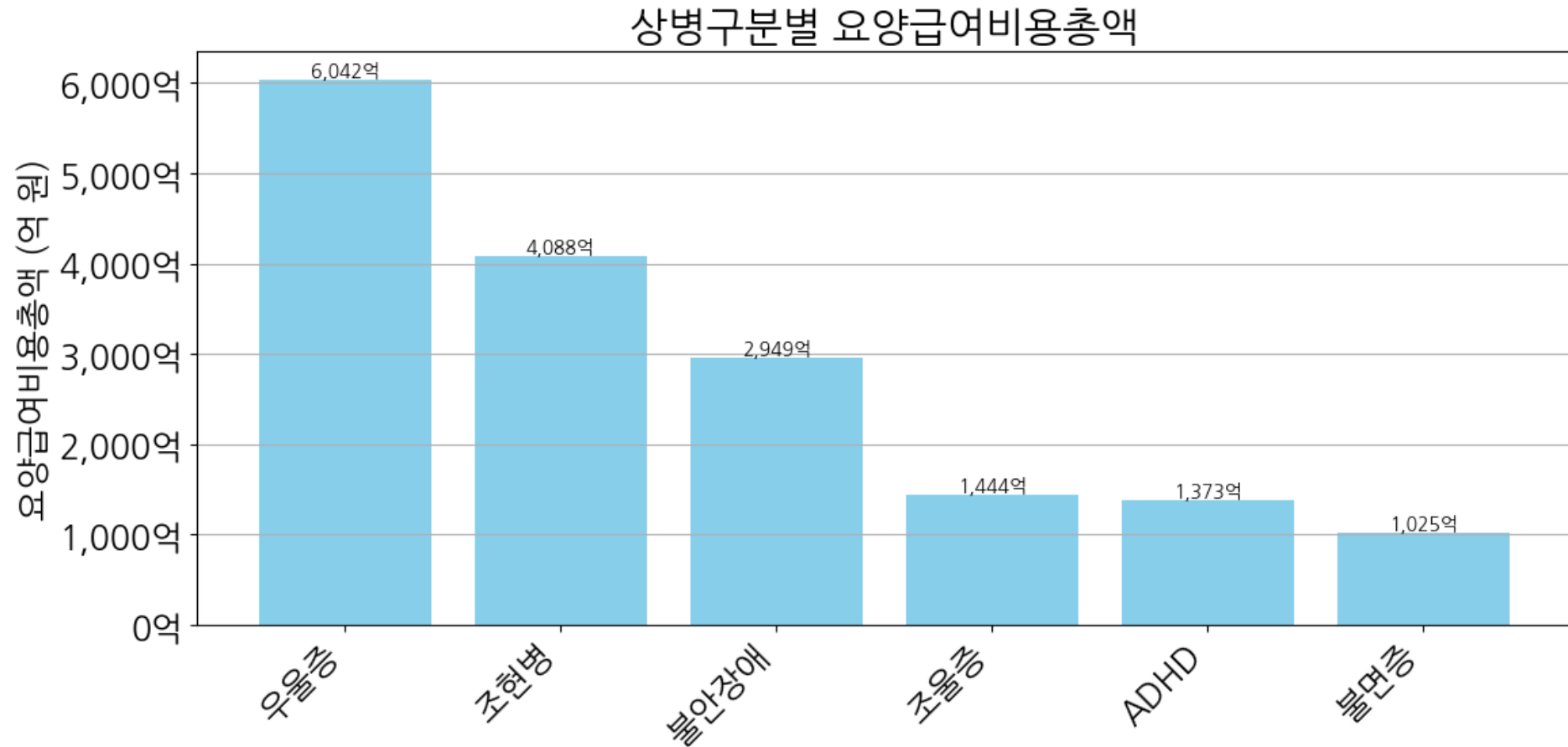
데이터 전처리 과정

- 결측치가 없고, 잘 구성된 데이터
- 다만 진료년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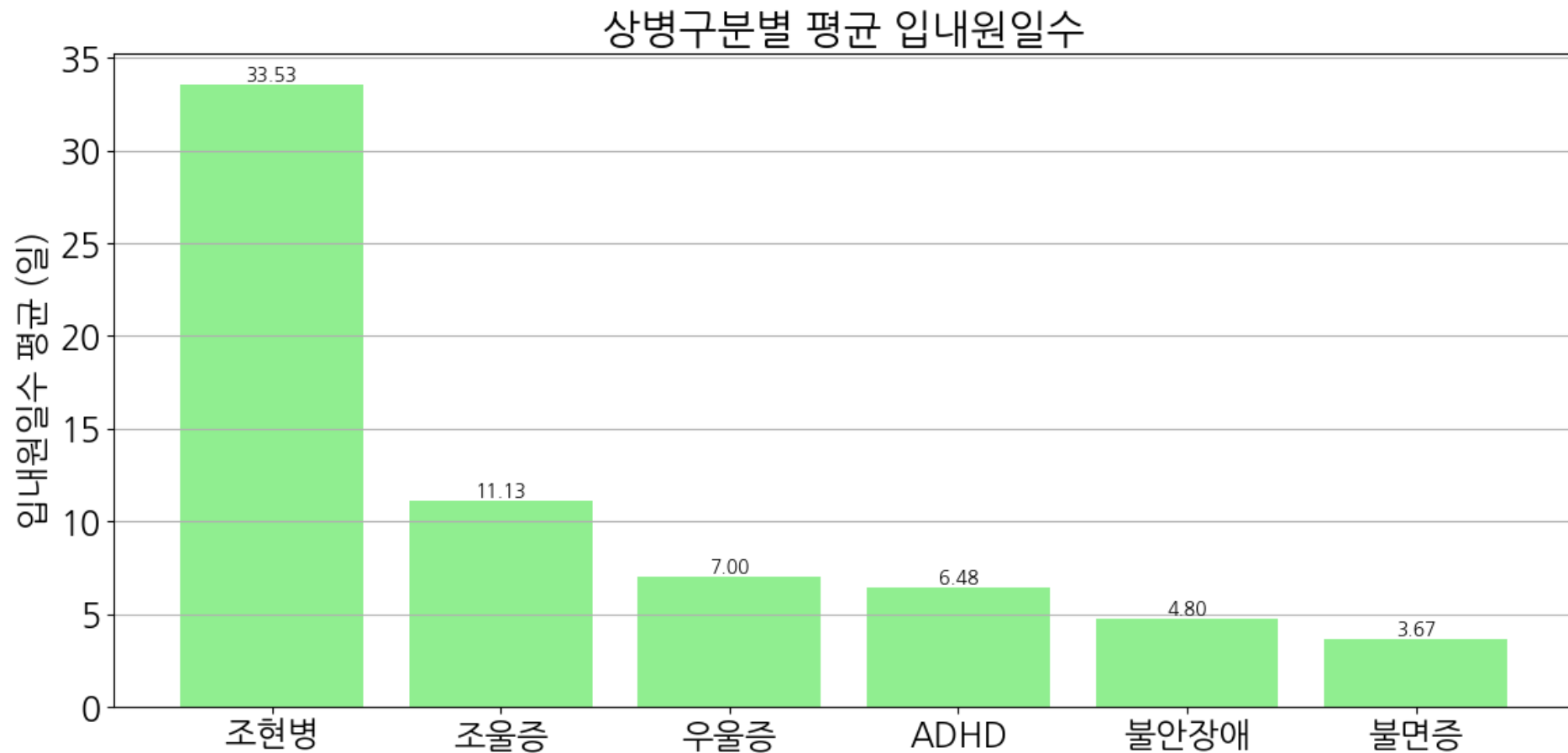
```
<class 'pandas.core.frame.DataFrame'>
RangeIndex: 33506 entries, 0 to 33505
Data columns (total 9 columns):
#   Column                Non-Null Count  Dtype  
---  -
0   진료년도              33506 non-null  int64  
1   상병구분              33506 non-null  object  
2   시도                  33506 non-null  object  
3   시군구                33506 non-null  object  
4   성별                  33506 non-null  object  
5   연령군                33506 non-null  object  
6   환자수                33506 non-null  int64  
7   입내원일수            33506 non-null  int64  
8   요양급여비용총액      33506 non-null  int64  
dtypes: int64(4), object(5)
memory usage: 2.3+ MB
```

	진료년도	상병구분	시도	시군구	성별	연령군	환자수	입내원일수	요양급여비용총액
0	2023	ADHD	서울	강남구	남	0~9세	980	6448	519912600
1	2023	ADHD	서울	강남구	남	10~19세	2295	17250	1509286940
2	2023	ADHD	서울	강남구	남	20~29세	1431	10151	1160302970
3	2023	ADHD	서울	강남구	남	30~39세	1137	8171	1033772760
4	2023	ADHD	서울	강남구	남	40~49세	312	2168	260667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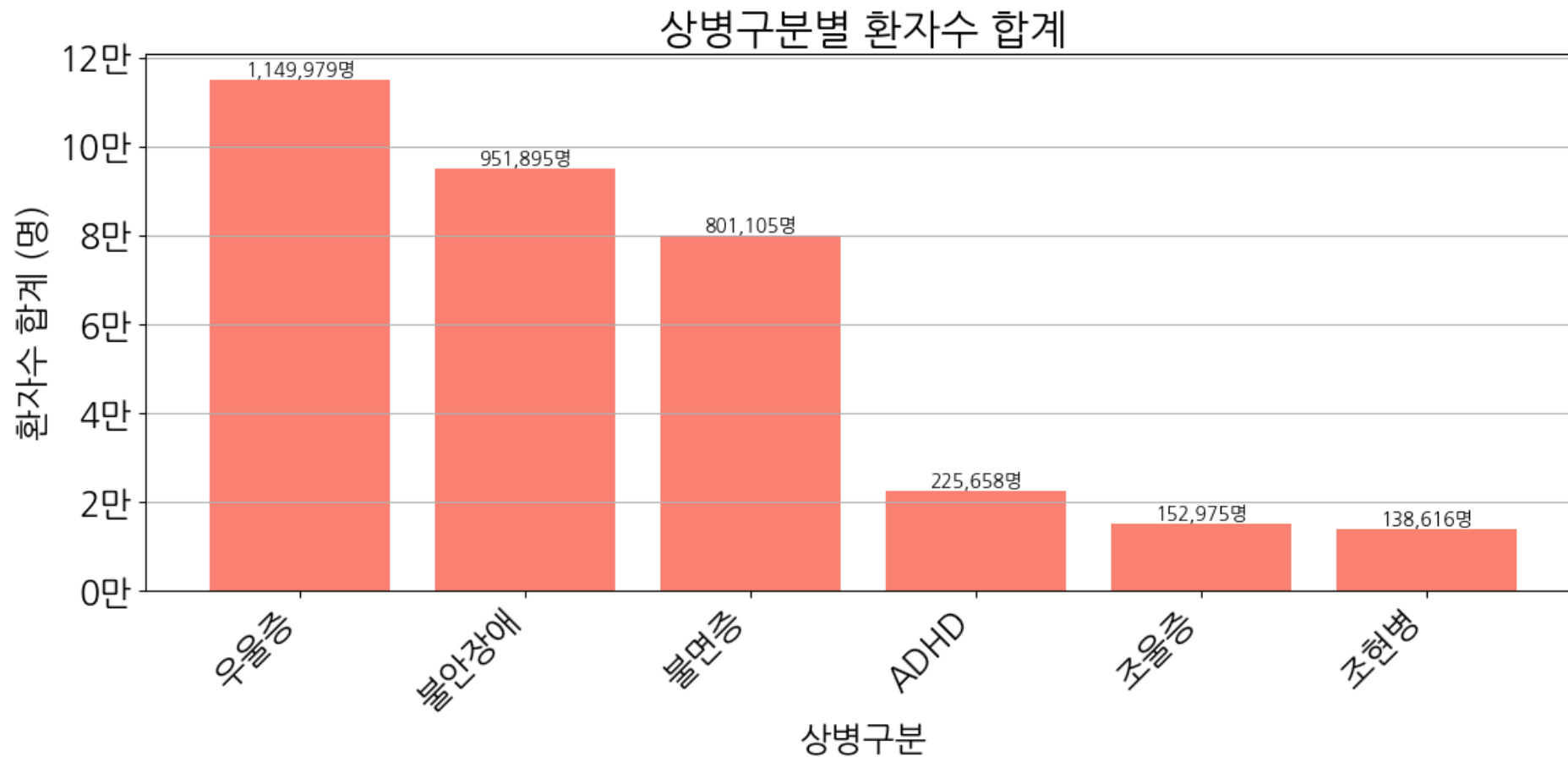
상병구분별 요양급여비용총액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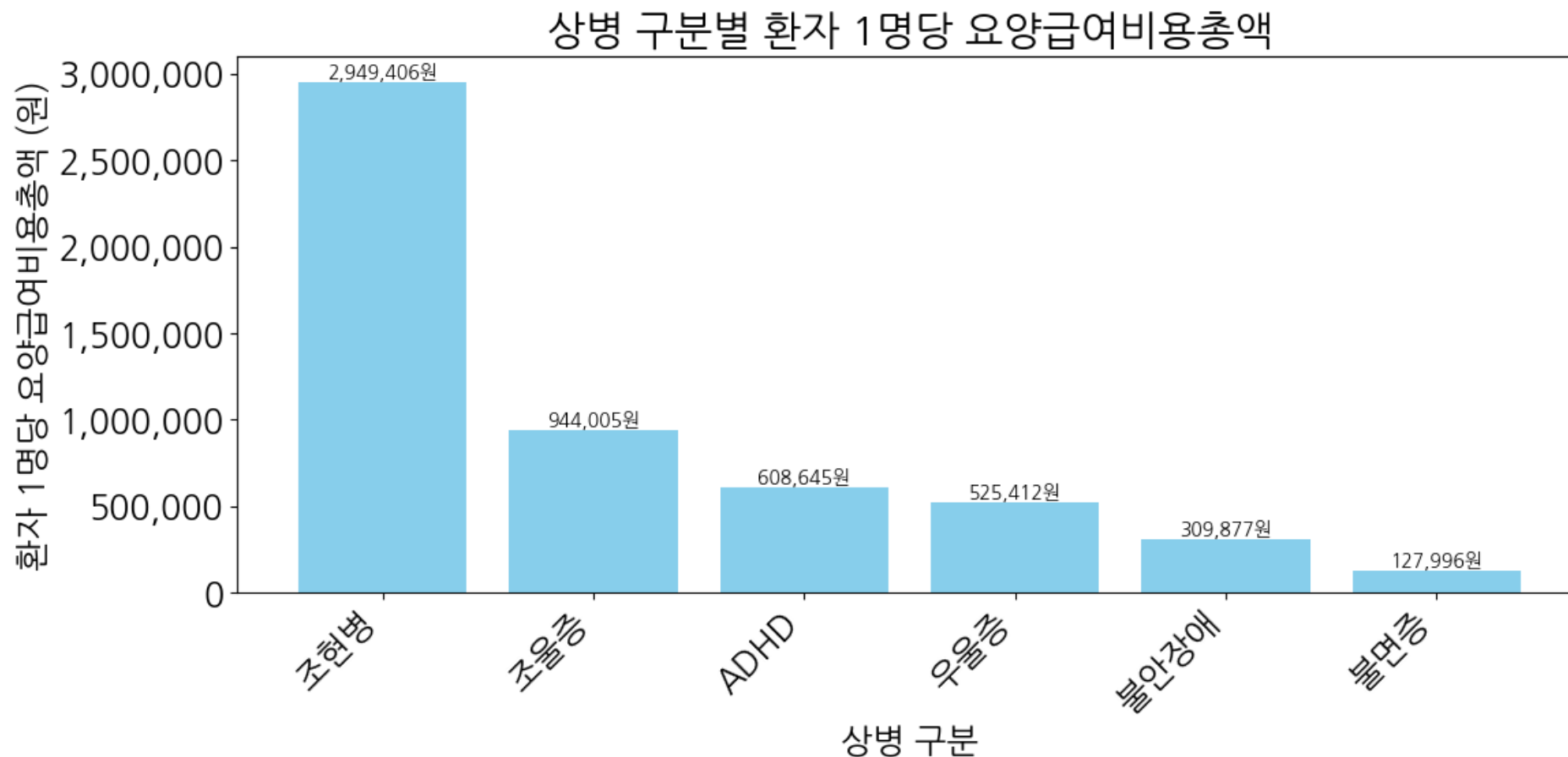
상병구분별 요양급여비용총액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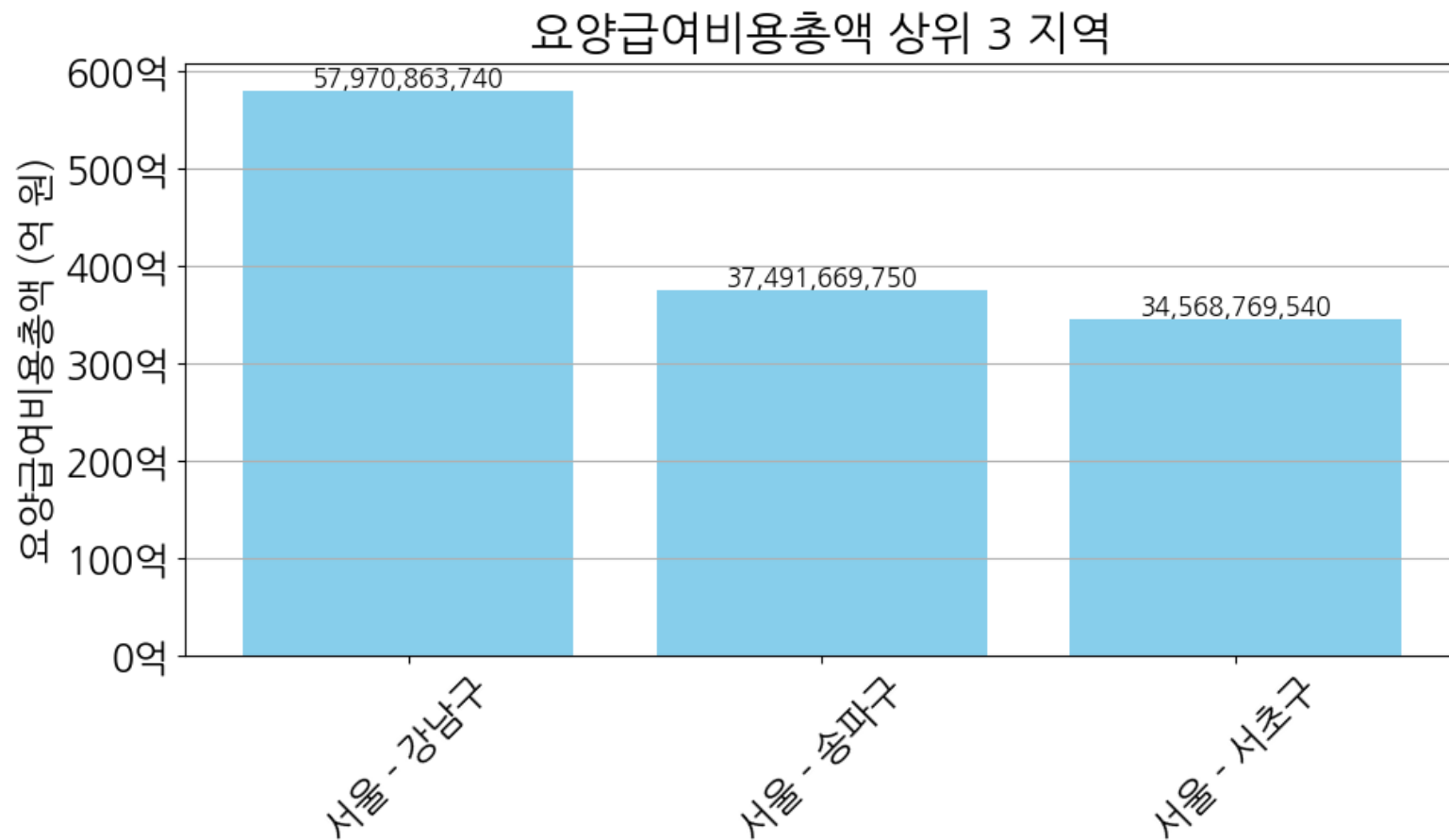
상병구분별 환자수 합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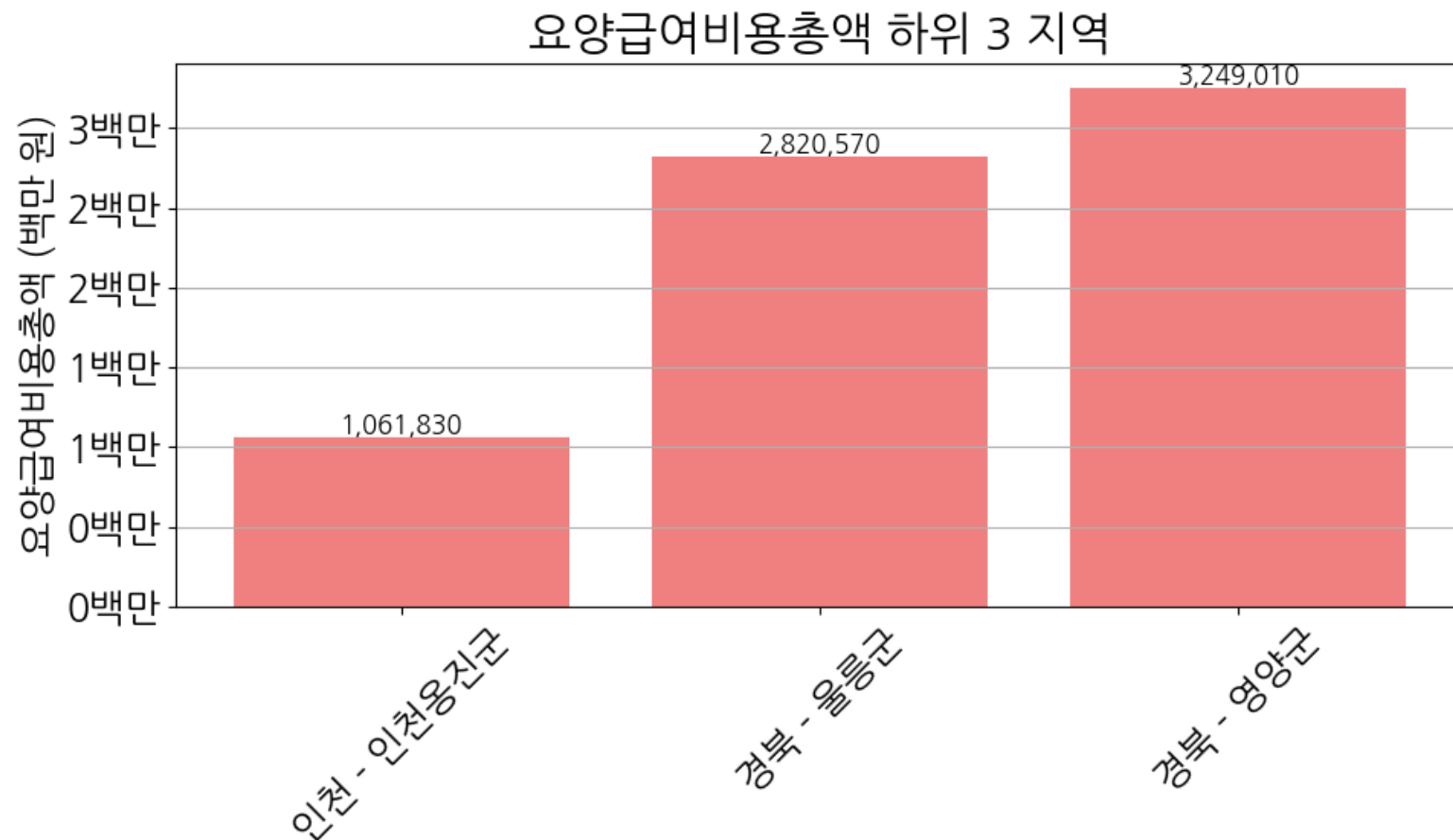
상병구분별 환자 1명당 요양급여비용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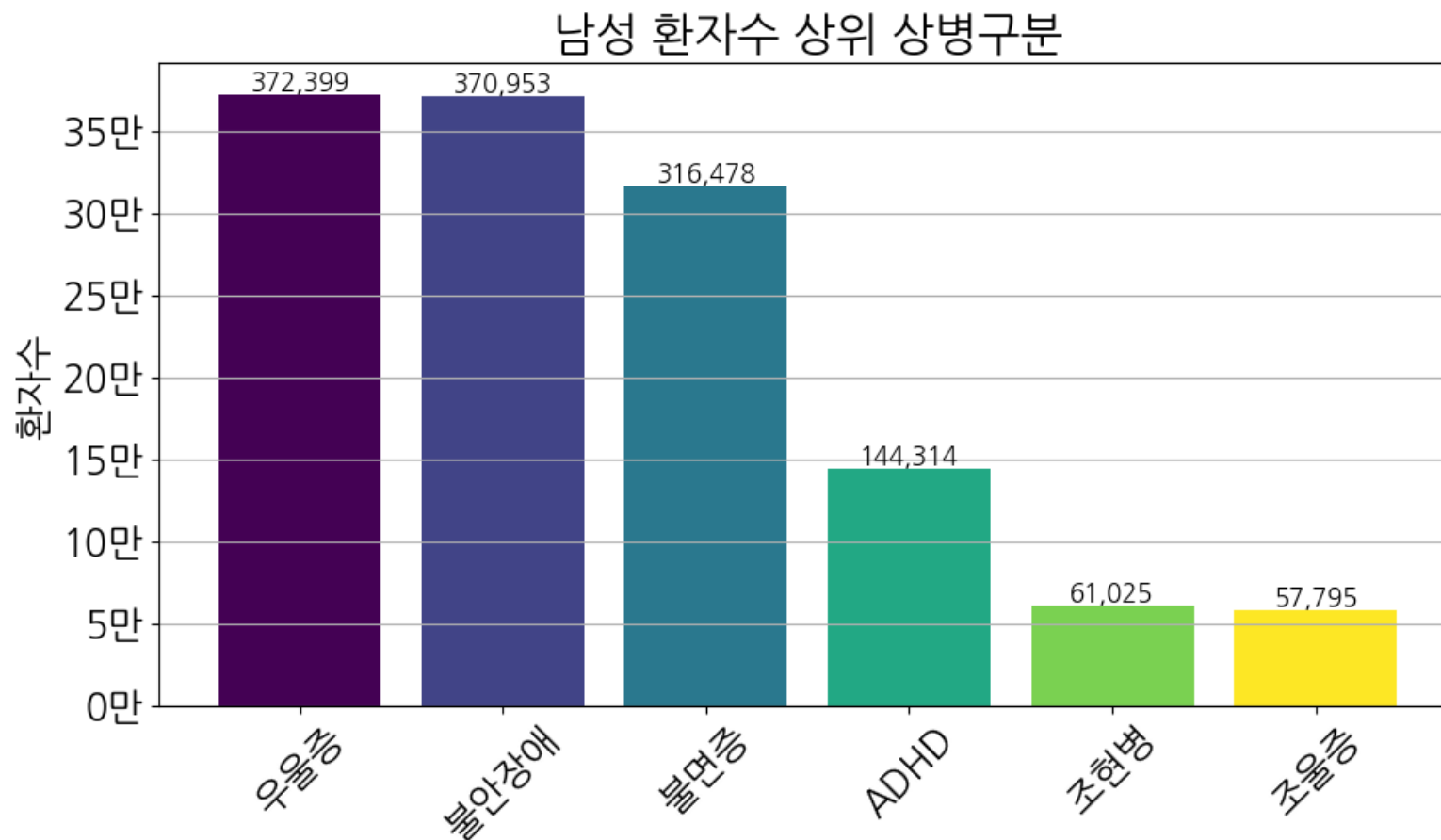
요양급여비용총액 상위 3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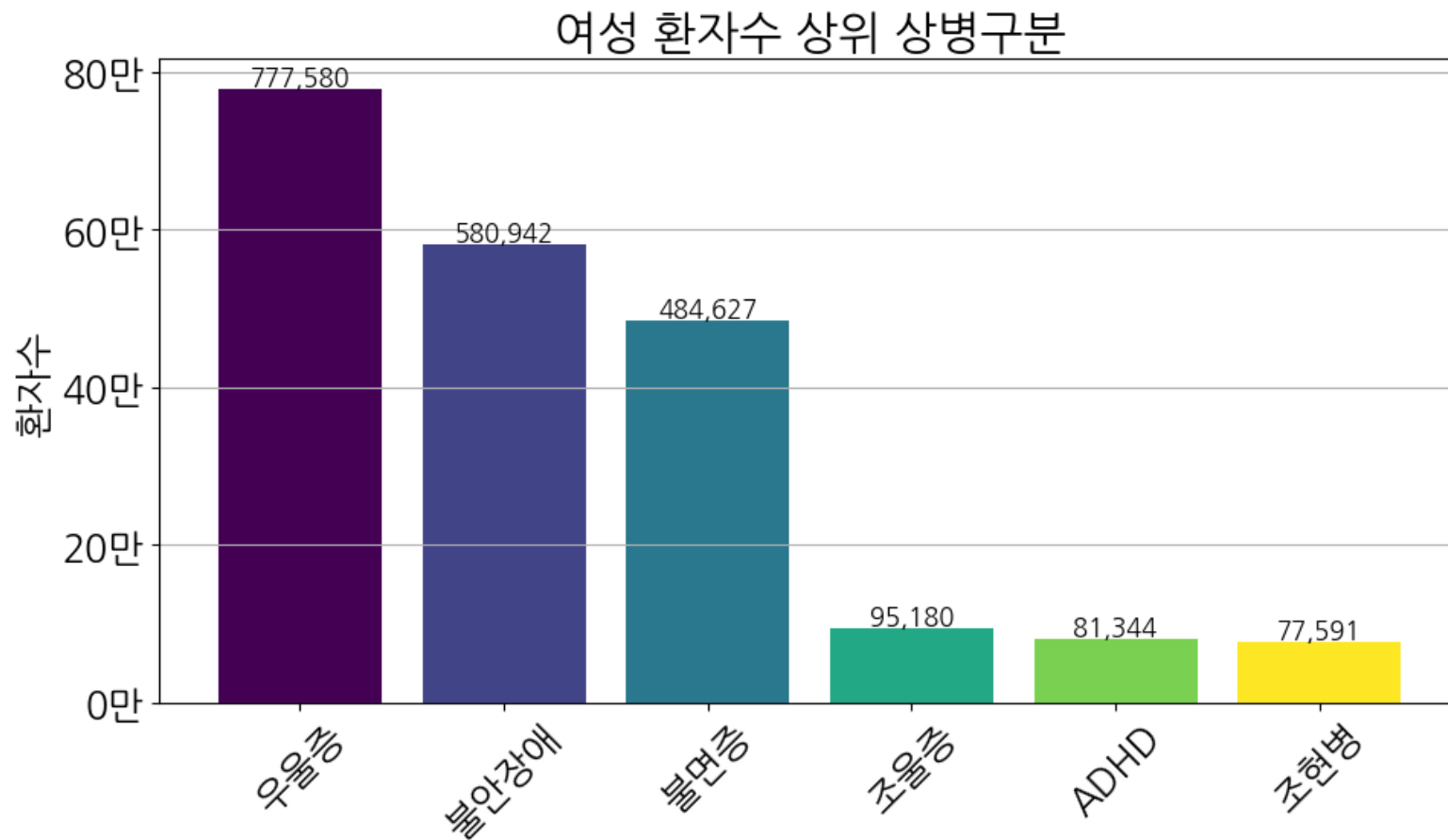
요양급여비용총액 하위 3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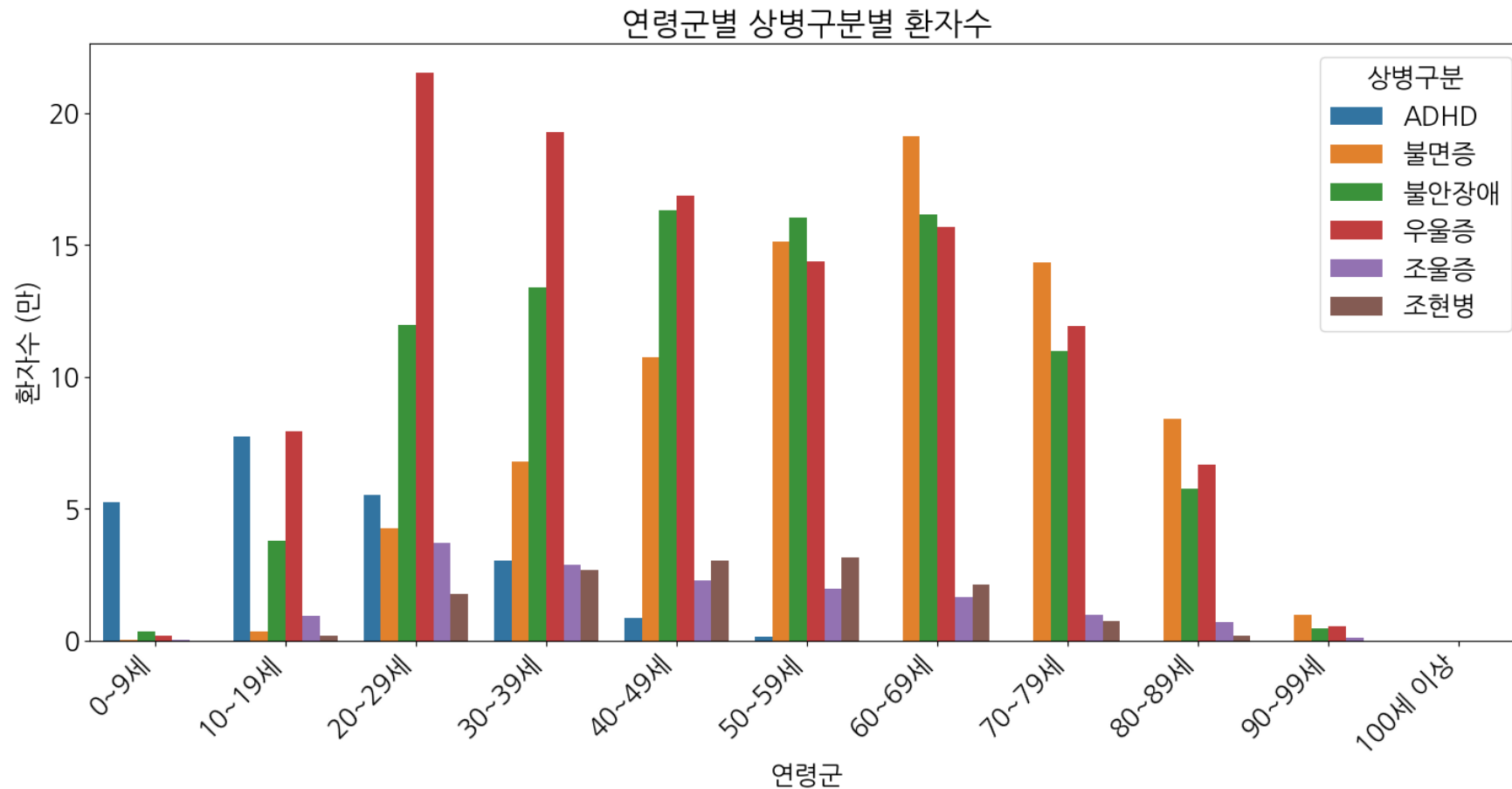
상병구분별 남성 환자수 순위



상병구분별 남성 환자수 순위



연령군별 상병구분별 환자수



요약 및 결론

1. 상병구분별 분석 결과

- 주요 정신 질환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다.
- 조현병 환자의 1인당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다.
 - 조현병 환자 수는 적지만, 치료 비용이 높아 조현병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 불안장애와 불면증은 우울증 다음으로 많은 환자 수를 보이고, 요양급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 ADHD는 아동·청소년기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고, 조울증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난다.

요약 및 결론

2. 지역별 분석 결과

- 수도권과 광역시에 요양급여비용 지출이 집중되어 있다.
 - 인구 밀집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기 때문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정신 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성별 분석 결과

-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은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많다.
- ADHD, 조현병은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많다.

요약 및 결론

4. 연령대별 분석 결과

- 10대 이하에서는 ADHD,
- 20~30대 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 60대 이상에서는 불면증 환자가 많았다.

요약 및 결론

- 성별과 연령대별로 주요 정신 질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생애주기별로 다른 정신건강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및 지방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위험한 질환(조현병 등)일 수록 복지 차원에서의 의료지원 차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